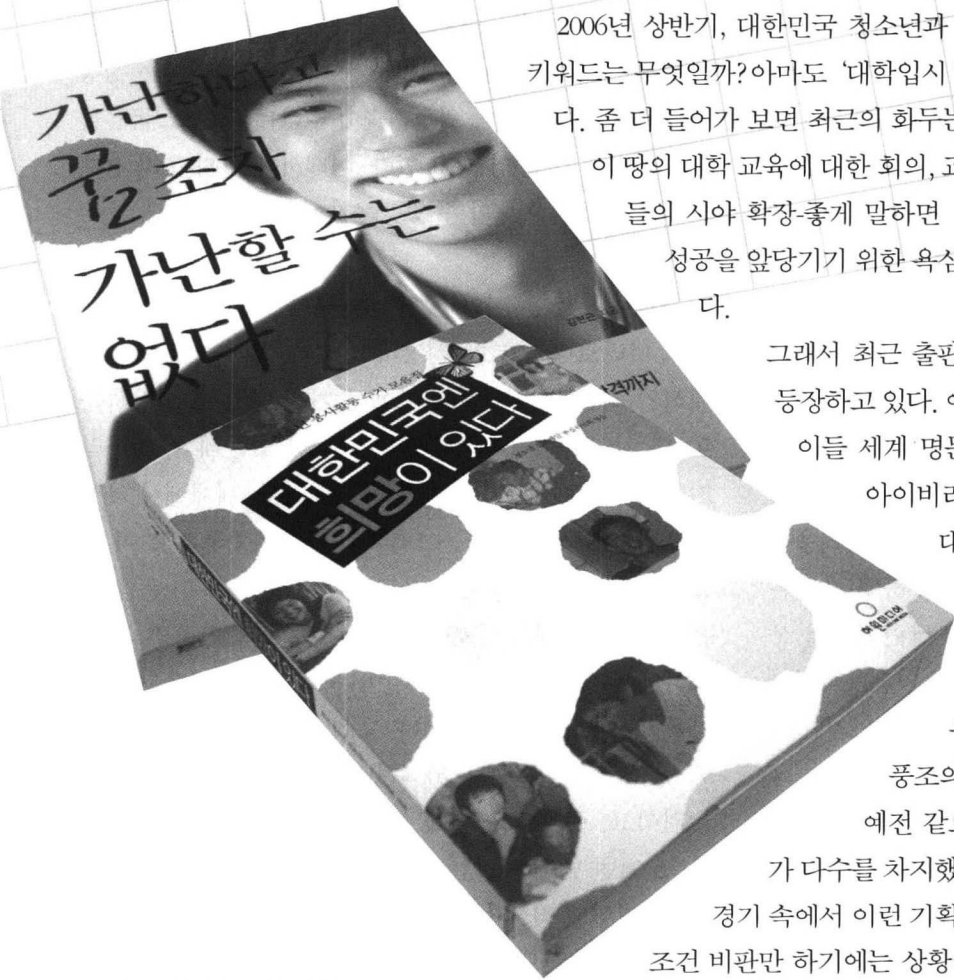


김현근의 《가난하다고 꿈조차 가난할 수는 없다》 반휘민 등의 《대한민국엔 희망이 있다》

‘청소년 수기’ 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

글_ 김준호



2006년 상반기, 대한민국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가장 주목받는 교육 분야의 키워드는 무엇일까? 아마도 '대학입시 합격', 나아가서는 '명문대 입학' 일 것이다. 좀 더 들어가 보면 최근의 화두는 '해외 명문대' 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땅의 대학 교육에 대한 회의, 교육 분야의 전문가가 수준에 이른 학부모들의 시야 확장- 좋게 말하면 '글로벌 비전' 이고 맵게 말하면 '자녀의 성공을 앞당기기 위한 욕심' - 등 여러 요소가 맞물리면서 빚은 결과다.

그래서 최근 출판계에서도 이를 반영하는 각종 출판물이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에도 《여덟 명의 평범한 아이들 세계 명문대생 되다》(황소자리) 《10년후 경쟁력, 아이비리그로 가는 길》(한스미디어) 등 해외 명문대를 가기 위한 가이드 성격의 책이 쏟아지고 있다. 이른바 국내 최고 서열로 평가받는 'SKY' 대학들을 나오는 것보다도 요즘은 해외 명문대에 진학해야 우리나라에서 성공이 보장된다는 기묘한 풍조의 영향을 출판계도 받고 있는 것이다.

예전 같으면 이런 경향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다수를 차지했을 것이다. 그러나 요즘같은 출판계의 불경기 속에서 이런 기획을 마다할 출판사가 몇이나 되겠는가. 무조건 비판만 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어렵다. 베스트셀러의 부수 규모가 절대적으로 줄어든 지금, 오히려 이런 기획을 진행시킬 수 있다면 그것도 출판사의 능력이자 고생스런 섭외의 결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최근 청소년 수기 분야에서 '성공 수기' 쪽의 대표적인 경향으로 '해외 명문대 합격 수기' 가 급수상할 수밖에 없게 됐다. 성공 수기 시장의 규모를 키운 견인차로 첫손 꼽을 수 있는 책이 1990년대를 풍미한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김영사)다. 막노동꾼이었던 장승수가 서울대에 수석 합격했던 수기를 바탕으로 만든 이 책은 청소년 성공 수기의 원조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성공 수기 시장의 경향을 철저히 반영하고 있는 책이자, 2006년판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라고 할 수 있는 책은 무엇일까. 나는 여러 권의 책 가운데 《가난하다고 꿈조차 가난할 수는 없다》(이하 《가난하다고……》, 사회평론)에 주목한다.

이 책은 제목에서부터 독자들의 시선을 잡아끈다. '가난', '꿈' 그리고 '성공' 은 서점의 주요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청소년/학습법 코너의 인기 테마인 성

《가난하다고 꿈조차 가난할 수는 없다》
김현근 지음 | 사회평론 | 355쪽 | 값 10,800원
《대한민국엔 희망이 있다》
반휘민 등저 | 허원미디어 | 327쪽 | 값 11,000원

● 이 글을 쓴 김준호는

국내 단행본 출판 에이전시 '서울출판정보'의 대표. 10대 대상의 신문과 잡지기자, 《한국고교신문》 편집장 역임. 청소년 도서의 저자 겸 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다. 기획한 책으로는 《이범의 공부에 반하다》(10대의 꿈을 실현해주는 진로코칭) 등이 있고, 저술한 책으로는 《영어에 성공한 사람 13인이 털어놓는 영어학습법》(명강사 13인의 7차 수능공략) 등이 있다.

공 수기에 꼭 들어가야 할 핵심 키워드다. 여기에 최근의 시류를 반영하는 저자의 이력-한국과학영재학교 수석졸업과 미국 프린스턴 대학 수시 합격이 더해지니, 케이크에 비유하자면 귀한 재료를 아낌없이 쓴 데다가 데코레이션마저 돋보이는 야심작이 나온 격이다. 당연히 인기 있을 수밖에 없다.

《가난하다고……》의 저자인 스무 살 청년 김현근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공부를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 듯하다. 전 과목 중 한 문제만 틀려도 그런 자신을 용납하지 않았고, 결코 1등을 놓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의 학습전략을 세우며 공부와 투쟁(?)했다.

이 책의 극적 분위기는 고등학교에 진학해야 하는 현근이가 어려운 집안 여건에도 불구하고 특수목적고인 한국과학영재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부분에서 절정에 다다른다. 우리나라 최초의 영재학교인 한국과학영재학교는 다른 특목고와 다르게 학비가 저렴한데다가 커리큘럼과 교육시스템이 특별해서 형편이 어려웠던 현근이가 유학을 준비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곳이었기 때문이다. 수많은 영재들의 탐바구니에서도 좌절 대신 도전을 선택한 주인공은 2005년 삼성 이근희 해외 장학생으로 선발되고, 마침내 미국 최고의 명문 대학 중 하나인 프린스턴 대학에 수시 특차로 합격해 자신이 그토록 염원하던 아이비리그 유학의 꿈을 이루게 된다. 시쳇말로 '각본 없는 드라마'다.

현근이의 초등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 시절까지 극적 요소가 아주 드러나 있고 글 역시 맛깔스럽게 잘 씌여진 《가난하다고……》를 읽고 나면 대중에 대한 이 책의 흡인력을 여실히 느낄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씁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고백적 특질을 갖고 있는 수기란 장르가 청소년과 만나서 성공을 위한 실용서에 가깝게 변한 것이 청소년 성공 수기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인물이 치열한 노력으로 합격한 수기를 읽고 힘을 내면서 위안을 받는 청소년이 많기에, 지금도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인터넷 게시판들에 이런 수기들이 많이 올라와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성공담은 그들에게 위안보다는 오히려 거리감과 좌절감을 안겨 줄 수도 있다. 가난, 꿈, 성공이란 '성공 수기의 법칙'은 오히려 성공 수기에 대한 식상함과 거부감을 낳기도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청소년 수기의 대표적인 장르가 꼭 성공 수기여야만 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작은 성공, 작은 실패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또래들의 이야기나 작지만 귀한 감동을 주는 이야기들도 충분히 가치있

는 수기일 수 있다. 그래서 주목해 보게 된 책이 청소년 봉사활동 수기 모음집인 《대한민국엔 희망이 있다》(허원미 디어)다.

제1회 후농청소년문화재단 자원봉사상을 수상한 청소년들의 체험수기 41개를 모아서 펴낸 이 책은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느꼈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았다. "나눔은 갈라진 마음을 이어 주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 가야 할 가장 아름다운 길일 것이다"라고 말하는 방송인 김미화의 추천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책은 참된 나눔의 의미를 생생한 체험으로 엮어 전하고 있다.

이 책의 공동저자로 참여한 청소년들은 바쁜 시간을 쪼개서 어떻게 봉사를 해야 하는지의 노하우뿐만 아니라 봉사를 하기 전에 느꼈던 두려움 등에 대해서도 투박하지만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책이야말로 산 경험에서 우리나라의 현장의 목소리이자 청소년 수기의 바람직한 방향 중 하나일 수 있다. 학부모들이 자녀의 정신적 성숙을 위해 권해도 좋을 책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런 책이 청소년 수기 장르에서 주목받고 인기를 끌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요즘 유행어로 '급정직'하게 말하자면, 학부모들이 원하는 '해외 명문대 입학'을 위한 '노하우나 체험담'이 전혀 없는 이 책이 사랑받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청소년 도서 시장이 갈수록 입시 실용서 위주로 변해 가는 것은 우리 교육의 성숙이나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책이나 청소년 소설 등이 주목받으면서 시장이 건강한 균형을 이루기를 바란다.

물론 청소년 도서에서 성공 수기가 계속 나오는 것도 중요하다. 보통의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귀감을 얻어 자신의 좌표에 도우며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양서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청소년 수기에는 무궁한 가능성이 있다. 생생한 현실감을 무기로 삼아 청소년의 공부 의욕, 삶에 대한 생각의 전환, 창의력, 행복 등을 다양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르가 청소년 수기다. 이를 위해서라도, 다양한 청소년 수기가 출간되고 고루 사랑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시대의 중요 덕목 중 하나인 다양성은 자신의 창의력과 생각의 폭을 키워 주고 타인과의 건강한 공존을 가능하게 하므로 청소년이 꼭 배워야 할 요소다. 고루한 소리 일지 모르지만, 정신문화의 총화인 책이 장르 안에서의 다양성을 살릴 때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다양성을 체득할 수 있다고 본다. 청소년이 읽는 장르 중 하나인 청소년 수기가 다양성을 지닐 때, 우리 청소년들에게 자연스레 다양성이 깃들 수 있을 것이다. 